



온천

온천 특집

일본 여행 시 꼭 체험해 보고 싶은 '온천'. 온천 천국이라고 불리는 규슈 지방에서는 각지에서 온천을 즐길 수 있습니다. 미야자키현 각지에서도 원천이 솟아나며 현지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온천 시설도 많습니다. 현지인들과 함께 온천을 즐겨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일본인들의 생활상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유롭게 온천을 즐기고 싶다면 호텔이나 료칸에 숙박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골프나 해양 액티비티 등을 즐긴 뒤 온천에서 피로를 풀 수도 있습니다. 그중에는 이른 아침부터 입욕할 수 있는 시설이나 푸른 하늘을 감상할 수 있는 개방적인 노천탕도 있습니다. 물론 숙박하지 않아도 당일치기 온천을 즐길 수 있는 곳도 많으니 자기 스타일에 맞는 온천을 찾아보세요.





히노카게온센역

상세 정보

폐선된 다카치호 철도 히노카게역의 역사 건물을 재활용한 전국에서도 보기 드문 천연 온천 시설. 노천탕과 대욕장에서 바라보는 고카세가와 강의 맑은 물줄기와 눈앞에 펼쳐진 산맥과 깊은 계곡은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절경입니다. 부지 내에는 실제로 옛 다카치호선을 달리던 차량에서 숙박할 수 있는 'TRAIN INN'도 있습니다. 차창 너머로 펼쳐진 풍경을 즐기며 마치 열차 여행을 떠난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으니 꼭 한번 이용해 보세요.



ANA 홀리데이 인 리조트 미야자키

상세 정보

리조트 호텔 내 전망 온천. 노천 암반탕, 대욕장, 폭포탕, 사우나 등 다양한 종류의 욕탕이 있으며 숙박객은 물론, 오전 11시부터는 당일치기 온천으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스탠드업 패들보드(SUP)와 서핑 체험 등 눈앞에 펼쳐진 아오시마 섬의 해변에서 즐길 수 있는 액티비티도 있으니 체험 후 온천에서 피로를 푸는 것도 추천합니다.



교마치 온천마을 교마치 관광호텔

상세 정보

약알칼리성 단순천으로 미인탕으로도 유명한 교마치 온천마을. 교마치 관광호텔에서는 나무로 만든 망루가 특징인 노천탕과 대욕장을 갖추고 있으며 당일치기 온천 이용은 아침 7시부터, 숙박객이라면 24시간 입욕할 수 있습니다. 자가 원천을 계속 흘러보내는 가케나가시 방식의 온천을 즐길 수 있습니다.



에비노코겐 호텔

상세 정보

기리시마 연산의 끝자락에 펼쳐진 해발 약 1,200m의 에비노 고원에 있는 '에비노코겐 호텔' 내 온천. 수량이 풍부한 원천을 계속 흘러보내는 가케나가시 방식의 노천탕과 대욕장, 가족탕, 사우나 등의 시설이 있습니다. 11시부터 17시까지는 당일치기 온천으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웅대한 기리시마 연산이 바라다보이는 노천탕은 여행의 피로도 말끔히 씻어 줍니다.





호텔 니치난 기타고 리조트

상세 정보

360° 대 파노라마가 펼쳐지는 푸른 하늘과 녹음 짙은 산, 밤에는 별이 가득한 하늘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절경 노천탕과 대욕장, 사우나, 4종류의 암반욕을 완비한 리조트 호텔입니다. 당일치기 온천은 오전 10시부터 이용할 수 있으며 점심과 온천 이용이 포함된 데이 유즈 플랜 등도 있습니다.

